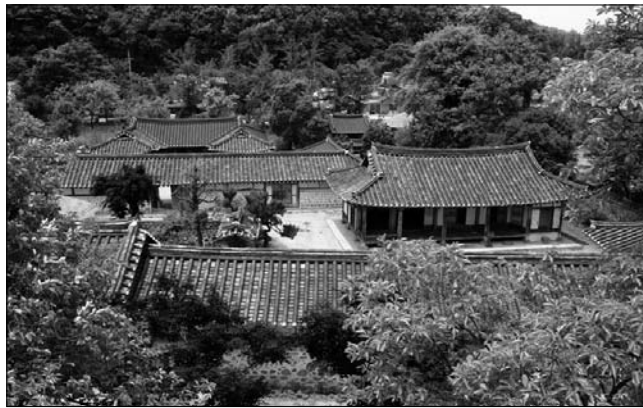


지역 소식통

정읍시 산외면 소재 조선시대 상류주택 김동수씨 가옥

# 김명관 고택으로 명칭 변경



우전면의 돌출된 부분에 부엌을 배치한 특이한 평면의 안채가 있다. 안채의 서남쪽으로는 안사랑채가 있는데 임항조(久恒)인 김명관이 본채를 지을 때 그 자신과 목수들이 임시로 거처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이라 한다. 또 안채의 동북쪽에는 작은 사당이 있으며 집 주위에 8채의 호지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2채만 남아있다.

이 가옥은 소박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건립자의 독창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여년 동안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 원형대로 보존되어 온 이 집은 균형미가 넘쳐나며, 처마의 흐름이나 기둥의 배열 등이 소박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제20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는 20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 개회 이래 2017년도 시정설계 청취를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시정주요사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점검으로 각종사업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정된 총 7건의 조례안 및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되고, 1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1건은 의결을 보류했다.

나병문 의장은 금년도 첫 번째 의사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업무보고 중에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들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 부안군, 국가안전대진단 대비 민·관 합동 안전점검

부안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하는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7개 분야 103개 대상 5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김중규 부안군수가 격포항과 상무동천, 종암제 등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안전 위험지역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현장행정을 해양경비안전서와 어촌계원, 자율방재단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했다.

특히 군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무동천 정비사업과 종암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을 진행했다.

/부안=이옥수기자

## 부안보건소, 몸짱명품클럽 운동교실

부안군보건소(소장 김달천)는 신체활동 부족으로 체지방률이 높고 만성질환 발병 우려가 있는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통해 일상생활 신체활동량 증가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몸짱명품클럽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몸짱명품클럽은 내달 7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매주 2회 만 19~60세 여성을 대상으로 에어로빅과 운동실 기구를 이용한 유연성·근력 강화운동 등 성인기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4일까지 부안군 보건소 3층 건강상담실 ☎ 063-580-3886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산외면 오곡리 81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조선시대 상류주택인 김동수 가옥의 명칭이 지난해 12월 27일자 관보에 공고됨으로써 김명관 고택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는 "문화재의 역사와 유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혼란을 주는 명칭에 기준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문화재청의 방침에 따라 김동수 가옥도 역사적 유래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최초 건립자인 김명관 고택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중요민속문화재 제 26호(1971. 5. 27. 지정)인 김명관 고택은 김동수의 6대조 김명관(金命寬)이 1784년(정조 8)에 건립한 일명 아흔아홉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창하산을 배경으로 앞에는 동진강 상류의 맑은 하천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터에 들어서 있다.

바깥행랑채 솥대문을 들어서면 아담하게 조화를 이룬 사랑채가 보인다. 시 안 행랑채의 대문을 들어서면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대청을 이루며 좌

## 부안군산림조합 정기총회 개최

### 2016년도 당기순이익의 6억8천만원으로 도내 1위 달성

부안군산림조합 정기총회가 20일 관재민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 정규순, 조합임원, 대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부안군 산림조합은 2014년도 4억4천만원, 2015년도 5억5천만원 흑자를 냈었고 특히 2016년도에는 6억8천만원의 흑자를 내어 전북지역 13개 산림

조합 중 수익률 1위를 달성하였고 전국 142개 조합 중 12를 기록하였다.

오세준조합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날로 발전하는 조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특히 전북지역 최우수 조합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신 부안군민을 비롯한 조합원, 임원 및 대의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정읍시,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정읍시가 농업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태풍이나 우박, 집중호우, 동상해 등의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 농가는 가입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고, 지역농업이나 원협을 통해 각 품목별 가입시기에 맞춰 가입하면 된다. 가입 품목은 사과와 배, 고구마 등 모두 47개이다.

시에 따르면 보험료의 88%(국비, 도비 포함)를 정부와 시에서 지원, 농가는 17%를 부담해 저비용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최소한의 구조수준이므로 대형 재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농가 경영 안정에 보다 더 유리하다"고 농업인들의 가입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농업인들의 가입 확대를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농작물 재해 보험 알리기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물 4천부를 자체 제작해 읍면동과 농협에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 김제시 드림스타트·청진회 '건강하고 해맑은 아이 만들기'

김제시 자생적 대표 봉사단체인 청진회(회장 김재문)는 지난해 12월 김제시청 드림스타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건강하고 해맑은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김제시 청진회는 100여명에 육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명의 저소득 어린이와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매월 크고 작은 행사를 마련하여 끊임없이 교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월에는 청진회원과 아동이 첫 만남을 갖고 레크리에이션을 통해서 "키다리아저씨와 행복추진, 사랑이 모락모락"이라는 주제로 아동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었으며, 2월에는 각 멘토가 신하기를 맞이하여

30여명에게 책가방과 학습품을 선물하고 부모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각 가정 방문하고 있다.

김제시 드림스타트와 청진회가 "건강하고 해맑은 아이 만들기"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배경을 김재문 청진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최근 가족해체와 가족기능의 약화로 어린이들의 빈곤 문제가 심각합니다. 단순히 후원품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어린이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할 수 없어서 청진회원은 어린이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멘토가 되어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 아동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 김제 백구면,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자체협의회 개최

김제시 백구면(면장 최니호)은 20일 면장실에서 농산물의 안전생산과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해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자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체협의회는 백구면장의 주재로 백구면 이장협의회장, 백구면농민회장 및 마을 이장 등 위원 8인이 참석하여 병해충 적기 방제지원을 위한 방제사업 선정, 약제 공급업체 선정 등 방제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했다.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출몰의인 마름병(애벌귀), 도열병, 흰잎마름병 등 육묘상처치러제 또는 모판처리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전년 대비 415ha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

정현철 이장협의회장은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적기에 방제하여 병

해충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적여건이 열악한 농촌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생생카드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도 백구면장의 주재로 같은 날 사무소 면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심의회 심사 후 백구면 관내 접수자 85명 전원 지원 적합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김제시에서 유사 복지 서비스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카드를 발급받아 찜질방 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제=곽노태기자

## 김제시 안전개발국,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

김제시 안전개발국(국장 임성근)은 20일 안전개발국장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추진과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동참 일환으로 2017년 안전개발국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임성근 국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개발국 사업 분야 1억원이상 주요사업의 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월별집행계획과 집행실적 제고방안을 논의하였다.

올해 안전개발국 분야 신속집행 대상액은 2,259억원으로 이중 60%인 1,355억원을 상반기 중에 효율적으로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기초자치단체 평균 55%보다 9%상향된 목표로 김제시 전체 신속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해마다 예산낭비 요인으로 지적되는 하반기 예산집행 관행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럽게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글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odi Wine

TEL : 063-584-8960  
www.gangsanwine.com